

내러티브 저널

2026년 4월 2일

오늘은 교생실습 첫날 아침조례에 참여했다. 아침독서 시간과 체육대회 회의를 함께하며 학생들의 얼굴을 하나씩 익힐 수 있었다. 아직은 이름과 얼굴이 모두 낯설지만, 학급 반장과 부반장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고 학생들의 분위기도 조금은 파악할 수 있었다.

점심시간에는 3명의 학생들과 면담을 진행하기 위해 교실을 찾아갔다.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흥미로웠던 점은 생각보다 점심을 먹지 않는 학생들이 많다는 것이었다. 다이어트를 하거나 공연 준비 때문에 도시락을 따로 챙겨 먹는 학생들도 있었다. 특히 예술고등학교답게 곧 있을 연극제를 준비하며 배역 오디션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인상 깊었다.

오늘은 학생들과 아주 짧은 대화만 나누었지만, 그 안에서도 각자 다른 고민과 관심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아직은 학생들의 이름을 부르기보다 얼굴을 한 번 더 확인하게 되지만, 하루빨리 모든 학생들의 이름과 얼굴을 자연스럽게 익히고 싶다. 학생들에게 먼저 다가가고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조금씩 관계를 만들어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교생실습의 시작인 만큼 학생들을 알아가는 과정에 더욱 집중해야겠다.